

### 간이식 후 소장 및 대장 전이가 확인된 원발성 간세포암 1예

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동성심병원 내과학교실<sup>1</sup>, 외과학교실<sup>2</sup>

\*장지선<sup>1</sup> · 박소연<sup>1</sup> · 김형수<sup>1</sup> · 신운건<sup>1</sup> · 김경호<sup>1</sup> · 이진현<sup>1</sup> · 김학양<sup>1</sup> · 김주섭<sup>2</sup> · 장명국<sup>1</sup>

**배경 :** 간세포암은 40-57%에서 간의 전이가 발생하지만, 주로 폐, 뼈, 림프절 등에 국한된다. 극히 드물게 소화관으로도 전이될 수 있으나, 소장과 대장으로 전이된 예는 찾기 힘들다. 연구들은 조직 검사로 간세포암을 확인하고, 간이식을 받은 후 추적검사에서 소장 및 대장 전이가 발견된 증례를 경험하고 보고한다. 증례 특별한 과거력이 없는 48세 남자로 피곤과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내원 당시 이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.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5700/mm<sup>3</sup>, 혈색소 13.9 g/dL, 혈소판 95,000/mm<sup>3</sup>, 프로트롬빈 시간은 INR 1.19였다. 혈청 생화학 검사에서 AST/ALT 50/51 IU/L, 알부민 3.3 g/dL, 총빌리루빈 1.3 mg/dL였고, 혈청 검사에서 B형 간염 항원이 양성이었다. 복부 CT에서 간표면의 결절상 변화 및 비장종대가 있었고, 간 III 구역에 직경 6cm의 단발 종괴가 관찰되었다. 상부위장관 내시경에서는 위저부와 하부식도에 선상 정맥류가 관찰되었다. AFP는 11.9 ng/mL였으나 PIVKA-II는 2000 mAU/mL 이상이었으며,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으로 확진되었다. 15분 ICG 정체율은 25%였고, 내원 20일후 생체간이식을 시행하였다. 간이식 10일 후 복부 CT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3개월후 시행한 복부 CT에서 소장에 다발성 결절과 그물막 침윤이 새롭게 관찰되었다. 간문맥 혈전이나 복수는 보이지 않았고, 혈청 AFP 1.2 ng/mL, PIVKA-II 305 mAU/mL였다.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였고, 대장과 복막의 유착 및 대장의 다발성 종괴, 소장 장간막의 결절들이 확인되어 소장 및 대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다. 조직 검사에서 소장의 장막에 국한된 간세포암종과 대장의 간세포암종이 진단되었으며 임파선 전이는 보이지 않았다. 이후 전신적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받았으며 간이식후 시행 1년째 복강내 전이 및 재발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다. **결론 :** 현재까지 간세포암종의 간이식 후 소장 및 대장 전이가 보고된 예는 없다. 혈행성 미세전이의 가능성도 있으나, 이식 전 시행한 조직검사 또는 수술에 의한 복강내 파종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.

### A cas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histologically confirmed in primary biliary cirrhosis
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<sup>1</sup> and Pathology<sup>2</sup>,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, Seoul, Korea

\*You Jung Ha<sup>1</sup>, Jun Yong Park<sup>1</sup>, Semi Park<sup>1</sup>, Kyung Min Kim<sup>1</sup>, Jin Ha Lee<sup>1</sup>, Young Nyun Park<sup>2</sup> · Kwang-Hyub Han<sup>1</sup>

Primary biliary cirrhosis is chronic cholestatic autoimmune liver disease characterized by progressive bile duct injury caused by portal and periportal inflammation, resulting in fibrosis and eventual cirrhosis in a significant proportion of patients. It is not well-known for the incidence, survival, and risk factors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patients with primary biliary cirrhosis. We report a case of 68 years-old male patients with primary biliary cirrhosis who developed hepatocellular carcinoma without hepatitis B or C virus infection. Histological analysis revealed well-differentiated hepatocellular carcinoma. He was successfully treated with percutaneous radiofrequency ablation and has regular follow-up evaluations without recurrence. This is the first case repor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primary biliary cirrhosis diagnosed with liver biopsy in Korea.